

# K리그1 개막 후 벌써부터 '양극화'

울산현대, 개막 5경기 전승  
전북 등 초반 부진에 팬 분노  
하위팀들의 반등 전략 절실



전북현대 팬들이 김상식 감독 등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1 개막 후 5경기를 치렀을 뿐인데 양극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우승팀 울산현대에는 일찌감치 독주 체제를 형성한 반면 하위권 팀에서는 감독 퇴진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울산은 개막 후 5경기에서 전승을 거뒀다. 울산은 개막전에서 라이벌 전북현대를 2:1로 꺾은 데 이어 강원FC, FC서울, 수원FC, 제주유나이티드를 차례로 누르며 전승 행진을 벌이고 있다.

울산의 경기력도 인상적이다. 조현우 골키퍼와 김영권, 김태환, 설영우 등 국가대표 수비진에 주장 정승현까지 수비에 짜임새가 있다. 중원에는 지난 해부터 위력을 인정받은 박용우이 구성 골키퍼가 견제한다.

주축 공격수 엄원상과 바코도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22세 이하 지원인 강윤규는 기대 이상 활약으로 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점왕 출신 이적생 주민규는 특점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이청용은 조커로 투입될 때마다 경기 흐름을 바꾸면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선수 루비손과 아타루, 마틴

아담 역시 팀에 잘 녹아들어 제몫을 해주고 있다.

이처럼 울산이 탄탄한 전력을 바탕으로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반면 지난해 울산과 우승을 다툰 전북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승무패로 12개 팀 중 8위로 처진 전북은 경기력도 좋지 못하다. 이동준, 정태욱, 이파노, 하파 실바 등을 영입했지만 영입 효과보다는 주전 골키퍼 송범근과 특점력·주력이 뛰어난 바르우 노련한 김보경 등의 유출로 인한 타격이 더 커 보인다. 유럽 이적

을 말리며 잔류사건 조구성도 위력이 반감된 모양새다.

제주의 부진도 눈에 띈다. 최영준, 정윤, 이창민, 임채민, 연제운 등 핵심 자원들이 출발상을 당하면서 2무3패로 최하위까지 떨어졌다. 유리와 헤이스 등을 영입했지만 지난해 시즌 공격을 이끌 제르소와 주민규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삼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하다. 제주와 함께 나란히 2무3패로 아직 첫 승을 올리지 못한 채 11위에 머물고 있다. 지난 시즌 강등을 막

아준 오현규가 스코틀랜드로 떠난 여파가 크다. 김보경, 아코스티, 바사니, 물리치 등을 영입했지만 아직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구단에서는 감독 퇴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전북 팬들 중 일부는 김상식 감독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원 팬들 중 일부도 응원을 거부하고 있다. 전북과 수원 선수단은 이른바 버스막기 항의에 직면하고 있다.

예상 밖으로 하위권으로 떨어진 팀들에게 반등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뉴시스

## 프로축구, 관중도 골도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30경기 유료관중 33만103명... 평균 1만1003명  
전반 10분 이내 9골, 후반 45분 이후 8골 폭발

프로축구 K리그가 관중과 득점 면에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올 시즌 K리그(1부) 5라운드 종료 기준 30경기에 유료 관중 33만 103명이 들었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 1003명이다. 1만 1003명은 2018시즌 1만 2006명 이후 K리그 최다 기록이다.

관중 증가와 함께 골도 많이 터지고 있다.

시즌 초반 다득점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30경기 중 13경기에서 양팀 합계 3골 이상이 나왔다.

또 30경기에서 76골, 경기당 평균 2.53골이 터졌다. 2.53골은 경기

당 2.60골을 기록한 2016시즌에 이어 2위 기록이다.

관중을 흥분시키는 경기 초반 득점과 경기 막바지 득점이 늘어났다.

전체 76골 중 전반 10분 이내 터진 득점은 9골로 K리그 역대 최다다. 2위인 6골(2018, 2016시즌)보다 3골 많다.

76골 중 후반 45분 이후 나온 득점 역시 8골로 2016시즌(9골) 이후 최다다.

연맹은 "경기 초반 이른 득점으로 관중의 몰입도를 높이고 경기 후반 극장골로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한 경기를 선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시스



호원대학교 씨름부는 제20회 학산김성룡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단체전 3위에 입상했다고 전했다.

## 호원대 씨름부, 전국대회 대학부 단체전 3위

### 학산김성룡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출전

호원대학교 씨름부는 제20회 학산김성룡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단체전 3위에 입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호원대 씨름부는 지난 2~3일 2일간 진해문화센터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해 대학부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호원대는 단체전 16강 부전승, 8강전 중원대를 4대1 승리, 이후 준결승전에 진출해 값진 3위를 했다. 운영준 감독(스포츠무도학과 교수)

은 "올 해 두 번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믿고 따라와 준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올해도 부상 없이 꾸준한 관리와 운동으로 좋은 결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대 씨름부는 2018년 창단 후, 28명으로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대학부 단체전 2위, 개인전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8개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장은성 기자

## 7월,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15~17일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서... 참가 접수 5월 1일부터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이하 WT)이 주최하고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 이하 재단)과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이하 KTA)가 공동 주관하는 '무주 태권도원 2023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이하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는 지난해 태권도원에서 처음 개최된 G1 등급의 대회로 올림픽 랭킹 71위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겨루기 종목 국제 대회다. 대회 상위 입상자는 그랑프리 시리즈 출전 기회가 주어지는 등 우수한 신인 선수 발굴의 기회로 남녀 올림픽 4등급 토너먼트로 치러진다.

참가 접수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며,

체급별 1위와 2위 선수는 10월 개최 예정인 G6 등급 2023 타이완 그랑프리 시리즈(10월 10일~12일)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대회는 흥미진진한 경기 관람을 위해 올림픽 수준의 화려한 조명·음향 등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스포츠 프레젠테이션을 연출 박진감 넘치는 비주얼로 경기의 분위기를 띄우는 등 관객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경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도 생생한 현장 모습을 시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열린 2022 그랑프리 챌린지를 통해 맨체스터 2022 그랑프리 시리즈 출전권을 획득한 국내·외 선수 16명 가운데 박태준(M-58kg) 서건



'무주 태권도원 2023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그랑프리 챌린지.

우(M-80kg) 선수가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5명의 선수가 3위 이내의 성적을 거두며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영환 이사장은 "지난 대회를 통해 맨체스터 그랑프리 시리즈에 참가한 유망주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라며

"올해 그랑프리 챌린지에는 더욱 많은 참가자, 더욱 뛰어난 실력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며 재단 전 직원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